

Robert Vannoy , Exodus to Exile, 강의 8B

사사기 소개

IV. 사사기 가

. 서론

로마 숫자 IV로 가봅시다. 그것은 "사사기"입니다. A. 그 아래에 "서론" 이 있습니다. 책 소개를 통해 몇 가지 간단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죽음과 사무엘의 출생 사이의 기간에 설정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의 끝에서 바로 죽습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온 땅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사무엘상 1장에 이르면 사무엘의 출생이 나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과 사무엘의 출생 사이에 기록됩니다. 또한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삽입된 작은 책인 룻기도 있습니다. 룻기 1절에 "사사 시대에 우리가 심판하더니 Israel... 아마 300년 정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책의 연대기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아마도 약 300년의 기간일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나라는 300년 동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니다. 300년은 아주 긴 시간이고 이 책은 비교적 작은 책이다. 이 책의 중심에는 각각 독립적인 이야기를 가진 6명의 개인, 6명의 주요 판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호수아부터 사무엘까지의 이 긴 기간의

역사에 대해 어떤 종류의 완전한 체계적 토론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주요 심사위원회에 대한 느슨하게 연결된 개별 스토리 단위의 모음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을 더 깊이 생각해보면 저자가 이 자료를 모을 때 정말 목적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도 명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목적이 칠판에 있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Israel. Israel 심판과 구원을 가져오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주요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외면하므로 Israel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하사 이웃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게 하시는 도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한 재판관을, 구원자를 세우셨도다. 그는 그들을 구출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휴식과 평화의 시간을 보내고 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이스라엘 역사의 이 시기를 그러한 생각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을 보지만, 그 다음에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보고 심판과 구원-본질적으로 축복과 저주에 관한 시내산 언약의 조항을 따르고 그것을 백성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

1. 야훼에게서 돌아선 이스라엘의 내적 연약함을 강조합니다 . 이를 염두에 두고 이 책의 다음과 같은 강조점을 보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Israe

1가나안 족속의 이교적 종교적, 도덕적 관습의 영향을 받아 야훼를 외면하는 그의 내적 연약함을 강조한다. Dan Block은 New American Commentary Series on Judges and Ruth(상당히 최근에 출판된 1999년 출판)에 주석을 썼습니다. 아마 사사기에 대한 최고의 논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사기에 묘사된 것으로 전왕정 시대의 이스라엘의 Israel가나안화 에 대해 말한다. 여호와를 떠나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출되어 로 데려온 land사람들 Canaan이 있으며 Egypt똑같이 기적적인 방식으로 Jericho를 건너 Jordan메롬의 물을 취합니다. 그러나 Israel 정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나안 사람들과 긴밀하고 확장된 접촉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종교는 다신교였으며 자연종교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은 다산의 개념을 특히 강조하는 개인화된 자연의 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 들어와 정착했고, 광야에서 방랑하는 대신 갑자기 농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농작물을 기르고 가축을 길러야 했습니다. 농부들은 언제 어떻게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지, 어떻게 농작물을 수확하는지, 적시에 올바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스승이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에게 비를 내리고 수확을 제공하고 비옥함을 증가시키는 신들을 공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나안 신들을 준수하는 의식과 축제가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생산적인 농작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땅에 왔습니다. 당신은 그 영토의 신을 숭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개념은 영토 신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논리를 따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숭배와 야훼 숭배를 결합시키려는 혼합주의에 빠질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사사기에 묘사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들과 함께 정착했고, 그들과 통혼했으며,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직면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방식과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 사이에 이러한 근본적인 대립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가나안 족속의 생활 방식. 그 대립을 유지하는 것이 의 의무였습니다 . Israel 그들은 달라야 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왕국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분리되어 오늘날까지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정반대의 선을 흐리게 하고 이 사람들과 정착했습니다. 그 동일한 문제가 오늘날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세상 사이에는 대립이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합니까? 경건한 삶의 방식과 당신이 살고 있는 문화의 삶의 방식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보존합니까? 이 선은 때때로 그리기 쉽지 않지만 동일한 문제입니다. Israel이 경계선을 혼동하고 흐릿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어져 혼합주의 예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강조점은 Israel가나안 사람들의 이교 종교와 도덕적 관행의 영향 아래 있는 의 약점에 있습니다.

2. 강조점은 왕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혼란스러운 사회 상황의 묘사이다 . 백성들이 주님과 언약의 신실함을 외면했을 때 그 결과는 종교적 혼란이었습니다. 당신은 책의 끝 부분에 이르고 개인 성소와 이후 장에서 첩 살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뒷부분에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 그런 다음 두어 번 그 문구가 반복되고 “에는 왕이 없고 Israel,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와 연관됩니다. 이 해체된 종교 법전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일종의 중앙 권위가 필요해 보이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17:6의 책 끝에서 그 진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때에 Israel왕이 없었더라. 모두가 그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대로했습니다.” 사사기 18:1: “그 때에 Israel왕이 없었더라.” 사사기 19:1: “그 때에 Israel왕이 없었더라.” 그리고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구절에 “그 때에는 Israel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사회 상황이 전개되었고, 그것은 결국 왕권 확립인 사무엘상으로 이어지는 왕에 대한 욕망으로 이어졌습니다.

3.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공로 없이 은혜로우신 개입에 대한 강조 세 번째 강조는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공로 없이 개입하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방식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Israel. 사사기 6장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선지자를 보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언약 형태의 소우주: “내가 너를 종살이하던 땅[여기서 내가 너를 위해 한 일]에서 이끌어 내었다 . Egypt의 권세에서 Egypt, 네 모든 압제자들의 손에서 너를 빼앗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몰아내고 그들의 땅을 네게 주었다. 나는 너희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여기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이 있다]의 땅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 ”

사사기 10:11 이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읽 습니다 . 그들의 손에서 당신을 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였거늘 너희가 내게로 돌아왔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당신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들이 당신을 구하게 하십시오!’ ” 그러나 주님은 뜻을 돌이 키십니다 .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그들을 건지시 느니라

그래서 그는 공홀과 심판을 함께 나누시며 회개할 기회를 거듭 주십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졌던 것처럼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거나 쓸어버리거나 그 땅에서 추방하지 않습니다.

Intertextual 재판관 구약 시대보다 훨씬 후대인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

시대인 열왕기하 13장 23절에 흥미로운 본문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2

절에 “ 여호아하스 시대에 압제자 Israel왕 Aram하사엘 ”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23절이 있습니다 . 오늘날까지 그는 그들을 진멸하거나 그의

면전에서 추방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은 마치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흥미로운 진술입니다. “당신은 내 인내심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너희를

내 앞에서 추방하고 이 땅에서 몰아내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그것이 언약의

저주의 절정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으로 돌아가면 가뭄, 불임, 메뚜기,

전염병과 같은 저주가 나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정은 “너희가 계속

불순종하면 언젠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호아하스 시대에 – “지금까지 나는 그것을 하기 싫었습니다.” 사사

시대로 돌아가면 여러 번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야곱에게 되풀이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시대의 역사를 요약한 시편 106편을 Israel보십시오 . 시편 기자는 34절을 시작하면서 Israel “ 저희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만민을 멸하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과 섞여 그 규례를 따랐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우상을 섬겼고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들과 딸들을 마귀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들이 무죄한 피를 흘렸 으니 곧 그들이 우상에게 제사한 Canaan그들의 자녀의 피라 그 피로 땅이 더럽게 되었느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일로 스스로를 더럽혔습니다. 그들의 행위로 그들은 음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그의 기업을 미워하셨도다 그분이 그들을 민족들에게 넘겨주셨고, 그들의 대적들이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들의 원수들은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권력에 굴복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43절을 주목하십시오 . 그러나 그분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을 때 그들의 고통을 꿰뚫어보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뜻을 돌이키사 ” 이것이 바로 이 시기의 사진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은혜롭고 신실하십니다.

느헤미야 9:27에는 이 기간에 대한 또 다른 요약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큰 공황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사 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나 그들은 평안을 누리다가 다시 주의

목전에서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 다음 당신은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셨고 그들이 그들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공황히 여기사 여러 번 그들을
 구원하셨나이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율법으로 돌아가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교만해져 당신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사람이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주의 규례를 저희가 범하였나이다 그들은 완고하게 당신에게
 등을 돌리고 목을 곧게 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 30절 에 주목하십시오.
 당신의 영으로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해 그들을 훈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보지 아니하므로 주께서 그들을 이웃 민족에게 넘겨주셨나이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크신 자비로 그들을 끝내시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 위대하고 능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의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어...

나. 내용: 책 개관

1. 사사기의 연대기 참조

B. 개요에 "내용: 책에 대한 개관"이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연대순 참조가 있습니다. 책을 훑어보고 모든 연대기 데이터를

추적하면 다소 복잡한 연대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도표와 다음 도표에는 각각 연도와 함께 압제 기간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의 압제와 40년 동안 지속된 웃니엘의 구원이 있습니다. 모압의 압제 기간은 18년, 구원의 기간은 80년입니다. 그런 다음 더 나아가면 심판과 압제 기간에 대한 추가 참조가 있습니다. 이 두 페이지에서와 같이 모두 나열한 다음 더하면 총 410년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그 410년을 얼마나 압축해야 하느냐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지역 갈등의 기간이 어떻게 서로 중첩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출애굽 날짜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이른 날짜를 선호할지 늦은 날짜를 선호할지 여부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 논의했습니다. 내가 이른 연대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사사기의 연대기와 조화를 이루기 쉽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날짜를 약 1290년으로 잡으면 40년 후인 BC 1250년경에 정복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정복은 1250년이고 솔로몬 시대는 BC 96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250년에서 966년을 빼면 284년의 공백. 우리는 또한 사사 시대 이후 솔로몬의 4년, 즉 엘리에서 솔로몬까지의 기간에 도달하려면 그것을 더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엘리는 약 20년, 사무엘은 40년, 다윗은 53년, 솔로몬은 4년, 그리고 당신은 또 다른 117년을 얻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끝까지 167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즉, 410년을 167년으로 압축해야 합니다.

이제 출애굽의 초기 날짜인 BC 1446년을 취한다면 정복은 1406년이 될 것입니다. 966년입니다. 그것은 440년이고 엘리를 솔로몬에게 데려가야 합니다. 즉 117년입니다. 그러면 323년이 됩니다. 410은 167로 내려가는 것과 비교하여 410은 323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사사기 연대기 데이터를 167년으로 압축하는 것보다 323년으로 압축하는 것이 더 쉽다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논의하고 싶지는 않지만 귀하의 참고문헌 목록(13페이지)에서 IV라는 제목 아래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나. *복음주의신학학회지*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에 실린 Andrew Steinman의 “사사기의 신비한 숫자”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 아주 최근인 2005년이고 관심이 있다면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연대기 압축은 책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나라의 작은 부분이 억압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즉, 지역적 탄압이었기에 중첩될 수 있었다. 거의 모든 두 명의 판사가 같은 기간 동안 적어도 부분적으로 활동했을 수 있습니다.

C. 기원전 1200년부터 1050년까지의 고대 근동 정세

C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기원전 1200년에서 1050년까지의 고대 근동 상황” 이집트 왕조로 돌아가면 기원전 1222년 메르넵타 이후에 혼란의 시기를 겪고 람세스 3세가 그리고 Rameses IV-XI 그들은 약한시기에 있습니다

. 의 늦은 날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Exodus, Egypt외부 의 소유물 에 대한 통제력 을 상실 했습니다 Egypt. Egypt그녀의 국경을 방어해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국으로 후퇴했고 국경 밖의 영토를 통제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크레타 섬에서 와서 공격한 사람들인 "바다 사람들"의 공격에 대처해야 했습니다 Egypt. 그것은 약 1200명이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Gaza. 어쨌든 요점은 Egypt더 이상 주요 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기원전 1900년경부터 기원전 1200년까지 히타이트 제국이 강세를 보였으나 역시 무너지고 말았다. 의 서쪽 지역에서 온 서쪽 적들로부터 무너졌습니다 Asia Minor. 우리는 앞서 히타이트와 싸운 람세스 2 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Orontes River. 그들은 대치 상태에 이르렀고 불가침 조약에 서명했고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원전 1280 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280년에 히타이트와 이집트인들은 레반트(레반트)의 통제권을 놓고 여전히 투쟁하고 있었습니다 Mediterranean. 그러나 1200년에 히타이트는 사라지고 Egypt그들의 영역으로 돌아갔다.

기원전 1200년경 메소포타미아로 넘어가면 Assyria약세기에 접어든다. 와 Carchemish에 가까이 가면 Damascus작은 도시 국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기간에 Israel주요 세계 강국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집트인은 약했고, 히타이트인은 사라졌고, 아시리아인은 약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주요 세계 강국이 아니라 모압, 미디안, 암몬, 블레셋과 같은 작은 지역 국경 국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특히 사사 시대가 끝날 무렵에 실제로 다음 주요 위협이 되었습니다. Israel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한 삼손이 있는데,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더욱 위협적으로 되는 사무엘상으로 이어집니다 Israel. 이것이 BC 1200년부터 약 1050년까지의 상황입니다.

D. 사사기의 구조와 내용 1. 사사기 1:1-2:5에서 더 논의되는 역사적 배경 -- 첫 서론

D.는 "사사기의 구조와 내용"이고, D. 아래의 1.은 "사사기 1:1~2:5에서 더 논의된 역사적 배경"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당된 그들의 자신의 영토의 정복을 완료하는 것은 각 지파의 책임이었다. 사사기 1:1-2:5은 여러 지파의 군사 작전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일을 끝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1장 27절을 보면 "그러나 므낫세는 벤산과 다 아낙 과 돌 과 이블르암 과 므깃도와 그 주변 거민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주하기로 작정하였음이었더라 ." 29절, " 에브라임이 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Gezer가나안 족속이 거기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30절,

“ 스블론은 기드론 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과 그들 중에 남아 있는 나할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들은 강제 노동을 시켰다. 31절, “ 아셀이 악고 에 거 하는 자를 쫓아내지 아니하고 … Sidon33절, “ 납달리도 벤세메스 거민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

그래서 이스라엘은 명령받은 대로 살지 못했고 그 결과는 2장 처음 다섯 구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언약 형태의 축소판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의 사자가 길갈에서 보김 으로 올라가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어 Egypt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더니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와 세운 내 언약을 결코 폐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이 땅 백성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당신은 나에게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한 거, 너 뭐 한 거니?] 왜 이러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고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의 신들이 네게 울무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매 백성이 크게 울며 그 곳 이름을 보김 이라 하였더라 거기서 그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

나는 그것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 설명된 사건의 과정을 상당 부분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함께 자리를 잡고 여호와를 등지고 그 결과를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는 사사기가 묘사하는 시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알게 됩니다.

2. 사사기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신학적 근거 사사기 2 :6-3:4 - 두 번째 서론

2. D. 는 “사사기의 적절한 이해를 위한 신학적 근거: 사사기 2:6-3:4” 입니다. 사사기 2:6-3:4은 때때로 “두 번째 서론” 이라고 불립니다. 책의 구조를 보면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배경이라는 두 가지 서론을 발견할 수 있다. 책의 끝에서 두 가지 결론을 얻습니다. 종교적, 도덕적 타락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책은 두 개의 서론과 두 개의 결론으로 북엔딩을 이루고 있고, 중간에는 6명의 주요 심사위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때때로 두 번째 서론이라고 불리며 여호수아 24:28-41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의미하는 바는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인 여호수아 24장으로 돌아가면 세겜 에서의 그 의식의 끝에 있는 28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계승. 이 일 후에 여호와와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십 세에 죽었더라 그의 기업의 땅 딘나 에 장사하였더라 북쪽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Mount Gaash세라 . Israel여호수아와 그보다 더 오래 사는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다 아는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 Israel

더라

이제 사사기 2:6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여호수아 24:28과 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시작되는지 주목하십시오 . 백성은 여호수아와 그보다 더 오래 사는 장로들과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 Israel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십 세에 죽었더라 그의 기업의 땅 딘나 에 장사하였더라 여기 에브라임 산간 지대 북쪽에 있습니다 Mount Gaash. 그 온 세대가 그들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가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대가 자라니라 Israel.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것은 여호수아서의 끝과 바로 연결되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여호수아 기자는 신실하지 못한 경향이 새로운 세대의 등장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사사기 2:10입니다. 그들은 정복 당시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12절, “그들이 자기들을 Egypt... 그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른 사람들의 손에 압제당하게 두셨습니다. 그런 다음 사사기 2:13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여호와 께 진노하사 Israel약탈자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약탈하더라 그는 그들을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사방의 적들에게 팔았습니다. 여호와 Israel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치사 치실지라 그들은 큰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 그리고 16절에 “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그들을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느니라. ”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순종으로 행한 길에서 속히 떠나갔다는 것을 읽게 됩니다. 18절은 말합니다 . 그들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자들 앞에서 신음하는 그들을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자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한 길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좇아 그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

그래서 당신 은 주님께에서 돌아서고, 억압하고, 어떤 이들은 회개하고 , 그 다음에는 구원을 받는 이 순환을 연습니다. 이 서문에서 회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 압제, 아마도 회개(적어도 도움을 청하는 부르짖음), 그 다음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신명기에서 미리 설명된 패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주님께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와 신명기 연결 및 언약 역사가

역사학을 공부하다 보면 헤로도토스가 역사의 아버지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기원전 484-425년경에 살았던 헤로도토스가 구약성서보다 훨씬 후기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Herodotus 이전에는 진정한 역사가 없었다고 종종 주장됩니다. 당신은 왕의 업적에 대한 연대기와 전쟁

연대기만 가지고 있을 뿐, 사건이 역사의 흐름에서 더 큰 의미의 맥락에 포함된다는 의미에서 진정한 역사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와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책들에서 찾을 수 있는 진정한 역사 철학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헤로도토스 시대보다 거의 천년 전입니다. 사사기에 수집된 역사는 신명기와 신명기의 신학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신학적 역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역사가 신학적 도식에 의해 압축되거나 지시되었거나 그 신학적 도식에 의해 거짓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한 실제 반영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의 규정에 따라 그의 백성의 삶에서 그의 목적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누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포함한 이 역사서에는 언약에 정통한 역사가인 “언약 역사가”라고 불리는 이 시대의 사건의 의미에 대한 예언적 해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서라는 범주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필자를 “신명기 역사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신명기 역사가”라는 꼬리표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수아에서 열왕기까지의 포로 작가인 마틴 노스 의 신명기 역사 개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을 신명기 신학의 범주에 모든 역사를 맞추는 포로 시대에 사는 역사가로 본다 .

Israel나는 그 접근 방식을 긍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사기가 신명기의 신학과 잘 맞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신명기는 주장하는 대로 모세 시대에 위치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여호수아와 사사기 같은 후기 책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당신은 사사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신학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글썄, 우리는 시간이 없으므로 다음에 거기에서 데리러 갈 것입니다.

Andre Santos가 각본을 맡은 작품

러프 편집: Ted Hildebrandt

Elizabeth Fisher

의 최종 편집 Ted Hildebrandt가 다시 설명함